

국제공연 시리즈로 민간 공연장 새 지평 열다

문화공간 이름, 23~24일 지역 민간 소공연장 단독 기획·유치 최초 국제 교류 공연 시리즈 개최

130석 남짓한 전주의 한 민간 공연장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공간 이름(대표 이윤정)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제공연 시리즈 'ERUM GLOBAL STAGE SERIES - Performing Arts Beyond Border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민간 소공연장이 단독으로 기획하고 유치한 최초의 국제 교류 공연 시리즈로, 전북은 물론 국내 공연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첫날인 23일 무대에는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가 결성한 사운드 아트 유닛 TENGGER(텐거)가 오른다.

몽골어로 '경계 없는 무한한 하늘'을 뜻하는 텐거는 전자음악과 미디어아트, 움직임 결합한 동시대적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팀이다.

이들은 2024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SXSW(South by Southwest) Grutke Prize를 수상했으며, 2025년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Tree Stage에 초청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BBC 6 Music, Pitchfork, AllMusic, KEXP 등 세계 유수의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는 텐거의 이번 공연은 한국 내 첫 공식 단독 무대로, 전주의 무대에서 아시아 현대 예술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라오스의 전통 마임극단 Cheo Bong(체오봉)이 무대에 오른다.



국제공연 시리즈 'ERUM GLOBAL STAGE SERIES - Performing Arts Beyond Borders' 포스터

체오봉은 라오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통 예술 전문단체로, 오브제 마임(Object Mime)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인다. 말린 코코넛과 천 등 일상적인 오브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과 즉흥적으로 소통하며, 언어 없이도

감동을 전달하는 무대는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다.

체오봉의 대표작 'On the Tree of Laos'는 2019년 광주 아시아 마임 캠프 페스티벌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연은 체오봉의 한국 첫 단독 내한 공연이다.

이번 글로벌 공연 시리즈의 기획과 유치는 문화공간 이름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 주도나 대규모 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 민간 공연장이 기획부터 초청, 운영까지 직접 수행하는 국제공연 시리즈는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화공간 이름은 2018년 개관 이래 꾸준히 실험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예술 기획을 선보이며 전북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이끌어왔다.

문화공간이름 이윤정 대표는 "작지만 진심을 담아 기획하고, 예술로 연결한다면 세계와도 통할 수 있다"며, "전주에서 출발한 이 작은 공연장이 지역 문화예술이 국제 무대와 연결되는 가능성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중심이 수도권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작은 공연장도 충분히 세계와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언적인 사례다.

이는 모든 예술가와 기획자, 정책 결정자들이 주목할 만한 사례로, 지방분권형 문화예술 생태계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창작 현장으로 초대 'We like to 8arty'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입주작가 창작공간 19~21일 일반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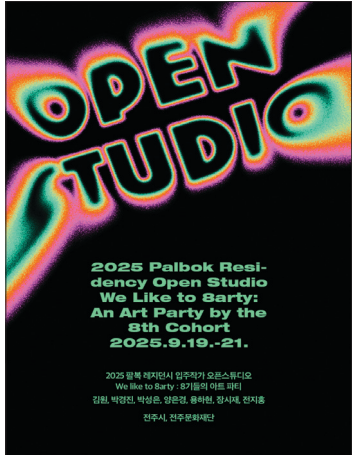
전주 팔복예술공장 입주작가들의 다양한 작업공간이 일반 시민에 공개된다.

17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오는 19~21일 복합문화예술공간 팔복예술공장 입주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참여형 예술행사 <오픈스튜디오: We like to 8arty>를 개최한다.

'We like to 8arty'는 'party(축제)'와 '8기(8arty)' 입주작가를 결합한 중의적 표현으로, 예술을 주제로 풀어낸 3일간의 오픈형 창작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팔복예술공장 A동 창작스튜디오에서는 각 작가의 작업실이 일반에 개방되며, 관람객은 예술가의 작업 과정과 작품 세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 작가별 작업 방식과 창작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작가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해 예술 창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클래스는 선착순 신청을 통해 소수 정원



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입주작가들이 준비한 소장품 마켓이 행사 기간 내내 열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가유산야행' 26~27일 개최

8개 분야 23개 프로그램 다채

가을밤의 정취로 가득 찬 전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국가유산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문화예술공간작소에서 주관하는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향교, 풍남문, 전라감영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가을 야행에서는 △야경(야간경관) △야로(테마 공간) △야사(스토리텔링) △야화(미술·체험) △야설(공연) △야숙(여행·숙박) △야식(음식) △야시(플리마켓) 총 8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야행의 주무대인 경기전 광장에서는 전주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전주국가유산야행의 마스코트인 태조할아버지와 야행이를 상화봉송 주자로 내세우며 펼쳐내는 지역 예술인 퍼레이드 '국가유산 천년의 행진'이 축제의 개막을 성대히 알리고, 이어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국가유산 풍류 한마당'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전라감영에서는 인류 문화유산과 올림픽 종목을 재치 있게 접목한 미니 게임과 조선 캐릭터들의 역사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라관찰사의 탄생'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들이 준비한 각양각색의 공예 체험인 '국가유산 청년 플리마켓'과 국가유산에서 캠퍼하며 운치를 즐기는 '국가유산 1박 2일' 등 전라감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운영된다.

후백제 역사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역사콘서트 '후백제의 왕궁, 아간산성'을 어진박물관 앞에서 개최하고, 곳곳의 견학을 찾아 떠나는 스탬프투어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가 행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향교의 유생이 되어 훈장님과 펼치는 숨 막히는 숭바꼭질 대결 '향교 괴담' (전주 향교) △풍남문을 무대로 펼쳐지는 특별한 국악 콘서트 '뜻밖의 국악' (풍남문) 등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성 기자



남원시, '명지각'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최우수상

남원시는 2025년 제23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명지각'이 준공부문 최우수상(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 주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명지각은 목조 건축 분야의 우수성과 전통 건축의 현대적 활용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지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39억)를 포함해 금동과 쌍교동 부지에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70㎡, 지상1층, 12동 11객실 규모로 조성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명지각은 앞으로 건물 외부에 최우수상 수상 동판을 부착해 대외적으로 수상을 홍보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국가사업 유치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야외 무료 영화상영 '전주씨네투어X산책'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장준호)가 전주시와 함께 야외 무료 영화상영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진행 중이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10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 총 31편의 독립영화와 단편영화 등 다채로운 작품을 무료로 선보인다.

이번 주는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 싸전다리 근처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19일에는 백승하 감독의 '갯길왕'이, 20일은 김혜영 감독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상영된다. 26~27일에는 덕진공원 야호팜갯길숲이터에서 특별한 단편영화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6일에는 '새로운 단편선'으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4편의 단편영화 '몬스트로 읍스큐라', '뉴-웰드 판광', '음어오아', '근본 없는 영화'가 상영되며, 27일에는 '씨앗 단편선' 3편 '찾아라! 데스티니', '나에게 다가오면', '뽕뽕이네 뽕뽕'이 상영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